



정의의 종

Vol. 19 2010. 09.

발행인: 정종섭 | 편집인: 한기정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Tel : 02-880-7565 | Fax : 02-885-7584
<http://law.snu.ac.kr>

2009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지난 8월 2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2009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62명, 석사 13명, 박사 9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최우등 졸업학생은 장성호, 김지은, 남구현, 우등 졸업학생은 양은영 외 11명이다. > 2 page

인사이드

7월 26일자로 김도균 교수가 법학도서관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원우 교수는 본부 학생부처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9월 1일자로 천경훈 교수가 신규 임용되었다.



김도균 교수



이원우 교수



천경훈 교수

2010학년도 법학대학원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우리대학에서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International Summer Program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는 조성준 교수(Chicago-Kent Law School), Dieter Grimm 교수(Humboldt University zu Berlin), Albert Choi 교수(School of Law, University of Virginia), Jerry Kang(School of Law, UCLA) 교수가 초빙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국제하계강좌는 법학대학원 개원 당시부터 기획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Contents

- 2 2009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 3 법대소식
- 4 2010학년도 1학기 법학대학원 평가회
- 5 법대소식
- 6 법학대학원 하계봉사 MT
- 7 법대소식
- 8-9 센터별소식
- 10 최고지도자 과정
- 11 교수신간소개, 교수동정
- 12 발전기금,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2009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지난 8월 2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2009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62명, 석사 13명, 박사 9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최우등 졸업학생은 장성호, 김지은, 남구현, 우등 졸업학생은 양은영 외 11명이다.



법과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정종섭 학장은 졸업식사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명의 사람이 만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졸업생들 또한 만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자기실현이 됨과 동시에 만인을 위한 것으로써 학생들이 공부를 할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 학장은 서울법대가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 온 역사를 언급하며 이제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넘어서 아시아 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이어 정 학장은 때로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되겠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과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주길 부탁하며 서울법대 졸업생임을 잊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당부하였다.



법과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김경한 법대 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생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 교문을 나가서 무한 경쟁의 바다에 뛰어들게 되어 적지 않은 시련에 다칠 것이나 최고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민주적 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거뜰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애환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동창회의 새로운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였다.



법과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박민희 대학원 졸업생 대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부터 우리들은 학문의 길에 있어서 보다 큰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과 의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은 지는 연구자로서 앞서 길을 나선 선배들의 좌절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전진해 나가 학문의 길에 있어서도 오늘과 같은 가슴 벅찬 날을 생각하며 버텨나가겠다. 이미 우리는 학교에서 시련을 버텨나가는 용기를 배웠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가치를 법학 안에서 믿게 되었다. 서울 법대를 졸업한 소박한 연구자로서 인간의 가치에 눈을 돌리고 결단을 내려야할 때는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선배이자 스승인 여러분들 앞에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슴 속 진리의 빛은 꺼뜨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겠다.” 라며 마무리 했다.

이어진 장성호 학부 졸업생 대표는 법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만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법학에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된 것 같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였기에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졸업과 함께 졸업생들은 각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겠지만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것이며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법대소식

법대문우회 창립 및 박구하 동문 추모 모임

지난 6월 18일 '법대문우회 창립 및 박구하 동문 추모 모임'이 열렸다.



최종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부 행사에서는 정종섭 학장의 환영사와 김경한 법대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2부에서는 '박구하의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유자효 시인(국제PEN클럽 한국본부이사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3부 행사인 서울법대 역사관 관람으로 막을 내렸다.

법대문우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에 앞장서며, 나아가 세미나, 학술대회 등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 해외대학 공동학위 프로그램 진행



본교 Intellectual Property 전공(지식재산 석사과정)과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IP전공 법학석사 공동학위 취득 프로그램이 지난 6월 14일 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IP전공 필수 과정으로, 현지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동대학 교수, 연방법원 판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수업을 들으며 8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현지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교수, 변호사, 연방법원 판사, 현지 기업들로부터 최근 IP현안과 실제 사례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IP 장학금 전달식



Intellectual Property 전공(지식재산 석사과정)이 우수인재를 위해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을 지난 7월 1일 학장실에서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법학대학원 지재권 과목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3인(홍승희, 황경환, 여현동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0학년 1학기 법학대학원 평가회

지난 6월 15일 서울대학교 라쿠치나에서 법학대학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10학년 1학기 법학대학원 평가회가 있었다.



정종섭 원장

1부 행사는 학생부원장 고태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종섭 원장은 축사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로스쿨에서 무엇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힘든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러한 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기말고사 성적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시험 결과에 신경쓰지 말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성낙인 전 학장은 건배사에서 학생들이 4년간 학부 과정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온 법학대학원이지만 앞으로 3년간은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더 고생스러운 고난의 길이 펼쳐져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1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에서 법률가들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앞으로 따뜻한 가슴을 갖춘 “좋은 사람”이 되어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창조적 새 시대, 법률가의 시대를 열어가기 기대한다고 하였다.



법학대학원 평가회

이상원 교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리더의 지위에 항상 따라오는 책임감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법률가를 어떻게 볼 지는 학생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가곡 “선구자”를 부르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이동진 교수는 제도적인 불확정성이나 취업 시장의 상황 등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해온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따르지 않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힘든 순간에는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을 당부하였다.



박병무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이어진 박병무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의 강연에서는 먼저 변호사에서 출발해서 금융, 통신,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CEO를 거쳐 다시 변호사로 돌아오게 된 자신의 인생 편력을 이야기했다. 처음 CEO로서 비즈니스 영역에 뛰어들면서, 연봉도 법률사무소 재직 당시와 비교해 심각하게 줄어든데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서 가져가야 하는 구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와 회사 채무에 거액의 연대보증을 서야 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원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사람이 긍정적인 원을 세우고 노력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서 바램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더 큰 꿈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을 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앞으로는 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간형이 리더로서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연 후에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각 테이블 별로 만찬을 들며 대화를 나누었고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학생들이 단상에 올라 소견을 발표하며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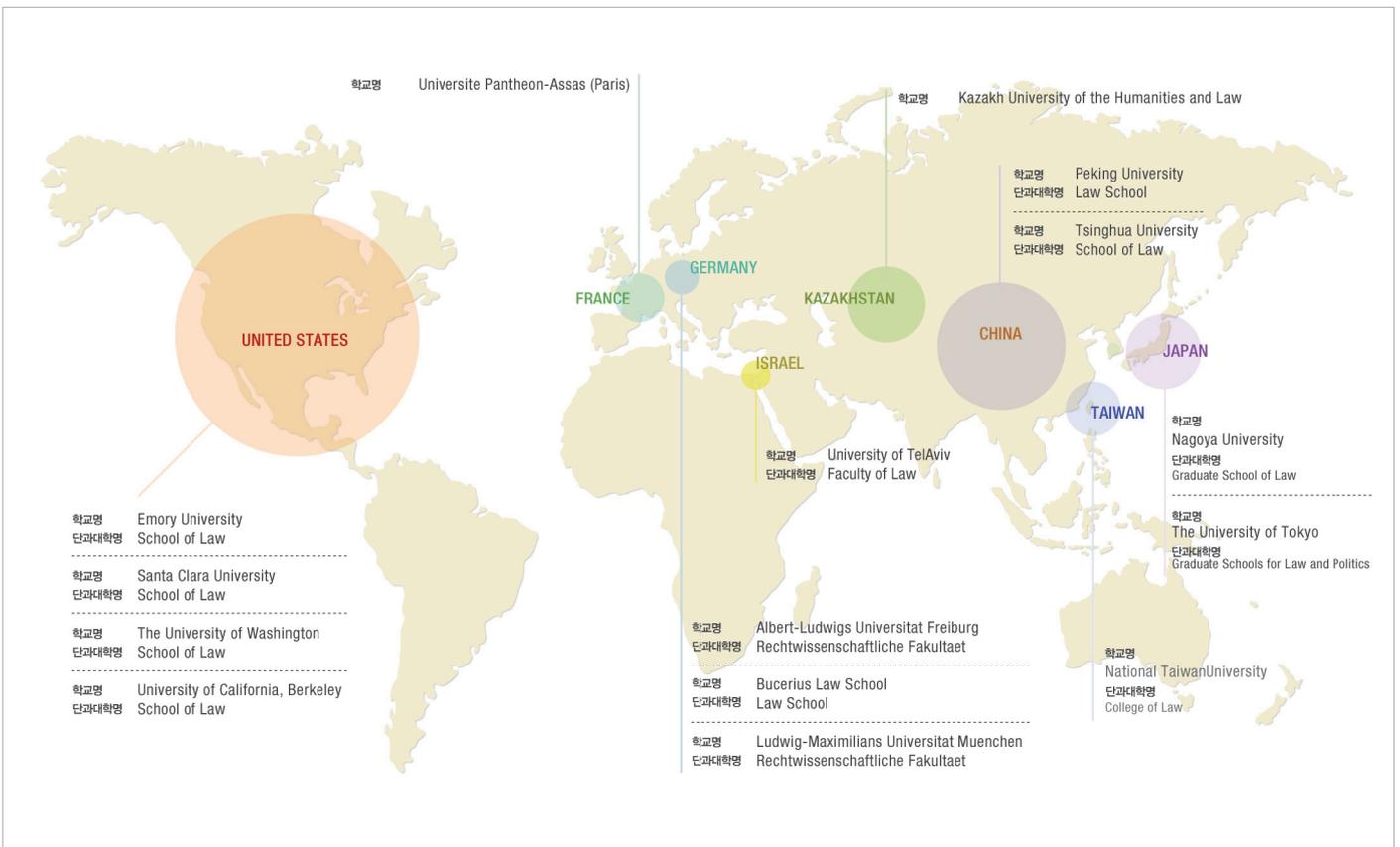
법대소식

외국인 학생 증가

최근 법과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해외로 파견되는 기회가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 대학을 찾는 외국인 교환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환학생을 제외한 일반 학위과정에서 재적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도 2010년 9월 현재, 학사과정 3명,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6명으로 총 59명이다.

현재 우리법대는 독일과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 나라 15개 대학(일반 학술협정 제외)과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환협정체결 현황 (일반 학술협정 불포함)



법학대학원 하계 실무수습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 된 법학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실무수습이 모두 38곳의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실무수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의견서 작성과 리서치 등의 업무보조와 각종 재판 참관 및 기관 방문 등의 일정들을 소화하며, 실제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법률이론과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국내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실무수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학대학원 하계 봉사 MT

지난 8월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북구 번3동 주공아파트 2단지 벌리공원에서 법학대학원 학생들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하계 봉사 MT가 진행되었다. 이번 하계 봉사는 제2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생회(학생회장 최철웅)에서 하계 방학을 맞이하여 법학대학원 1, 2기 학생들 간에 단합의 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며, 더 나아가 단순 친목 모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 단체 봉사활동과 MT를 연계하였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은 적십자 강북/도봉지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봉사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세탁봉사, 한 팀은 국수나눔 봉사를 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는 한편, 동기 및 선배 배간에 우애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학대학원 학생회는 앞으로도 방학마다 이러한 활동을 정례화하여 법학대학원의 전통으로 남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선 / 1기



대한적십자 봉사단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 번3동 어르신들과 주민 분들에게 나누어드릴 갈국수 면발을 만들어가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봉사단원 분들의 친절한 지도로 점점 국수 뽑기의 달인이 되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마냥 신기했고, 물러를 수차례 거치면서 점점 쫄깃해지는 갈국수 면발을 통해 저희들과 번 3동 주민 분들이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빨래를 밟았던 친구들의, 빗방울보다 더 시원한 땀방울도 잊혀지지 않네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대한적십자 분들과 여름 내내 수고해 준 학생회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로서는 거창하게 남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채 반나절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땀을 흘려 남을 돕는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하여 서울시 강북구 번3동 임대아파트단지에서 이불 빨래를 하고 국수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적지 않은 장애인 주민들과 연로한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고 한 끼니를 해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별로 대단찮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보람있는 것이며, 어쩌면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커다란 기부금보다도 값어치 있고, 그분들께서 진정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의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라는 말씀을 직접 눈과 귀로 전해 받은 채 몇 분도 되지 않은 시간은 이번 방학을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종훈 / 2기



남을 돕는 일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러한 가치만큼이나 실천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삶속에서 "제 코가 석자"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많으면서도 자꾸자꾸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야말로 '현대인의 비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봉사엔티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그러한 '비애' 속에 빠진 저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돈도 없고 힘도 없

너무나도 아쉽고 짧은 봉사엔티는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원 학우분들과 그밖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법학대학원 Pre-Law 프로그램

8월 16일에서 27일에 걸쳐 법학대학원 2010학년도 Pre-Law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법학대학원 재학생 중 비법학사를 대상으로 학업내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에 걸쳐 정선주 교수의 민사소송법 강의와 김종보 교수의 행정법 강의가 편성되었다.

서울법대 역사관 방문자 증가



어린이들 역사관 관람모습

지난 5월 개관한 서울법대 역사관 방문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학연구동 귀중자료실에 전시, 수장 중이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개관한 서울법대 역사관은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한국법학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자들은 한국 법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대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역사관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이 개선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대 초청 강연 활성화 예정

이번학기 서울법대 초청 강연이 오는 9월 14일 안대희 대법관의 강연을 첫번째로 시작되었다.

서울법대 초청 강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의 강연을 듣는 행사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기획되었다. 학생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리더 및 전문가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별 소식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저명한 중국 학자들과 국내 중국법 전문가들을 발표자 및 토론자로 초청하여 중국의 법과 사회, 민사법, 상법, 국제사법, 한중 FTA, 부동산 제도, 파산절차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법학연구소는 향후에도 다양하고 적실성 있는 주제로 여러 차례 국내의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있어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와 포이즌필의 설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지난 7월 30일 '한국에 있어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와 포이즌필(poison pill)의 설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Hideki Kanda 교수(Tokyo Univ.)와 우리대학의 김건식 교수, 송옥렬 교수, 박준 교수 및 태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는 지난 6월 8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강당에서 '국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상조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전략과 특허분쟁 예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조정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강호)와 박찬훈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국내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승복 변호사(특허법인 가산)는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어 심영택 교수는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정상조 교수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번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사법연수생 법률봉사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연수과정인 법률봉사연수를 7월 19일 ~ 23일과 7월 26일 ~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기술과 법센터는 이번 연수가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법연수생들의 공익봉사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7월 5일 ~ 6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 주최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실제 UN인권이사회의 진행과정을 모델링한 모의 UN인권이사회이며, 약 150여명의 참가자 및 심사위원단 등이 참석하였다.

7월 5일 참가자들은 버마인권, 북한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등의 특별절차실무분과로 나뉘어 열린 토론을 통해 최종결의안을 도출하였다. 오후에는 '도전 인권골든벨', '명사와의 대화', '이주노동자밴드 공연' 등 문화행사도 진행되었다.

7월 6일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심의대상으로 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분과를 진행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의 권고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 5개 분과에서 도출된 최종결의안을 표결하면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참가자들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5팀을 선정하여 2011년 제네바 인권연수의 기회도 부여하였다.

환경·에너지법센터, 헌법·통일법센터 개설

지난 7월 21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환경·에너지법센터와 헌법·통일법센터가 본부 승인을 받아 개설되었다.

환경·에너지법정책 센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의 보전과 개선, 재생에너지 등의 주제를 대상으로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정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또한, 헌법·통일법 센터는 헌법과 통일법 분야의 학문적 연구 심화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헌법정책을 제시하고, 특히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법의 학술적 연구의 체계화와 종합화의 달성,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학 합동연구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고지도자과정

최고지도자과정 제12기 수료식

지난 8월 19일(목)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12기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제12기 과정에서는 총 48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 사진

곽상욱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승은	사법연수원 교수
권현달	백암화학(주) 대표이사	윤장섭	(주)젤팩스&카엘 부회장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	이동현	장신대/사회복지법인 나자레원 객원교수/법인이사
김나영	(주)한국위터테크놀로지 이사	이성문	(주)하나테크 사장
김상귀	삼부토건(주) 상무	이정하	(주)중외기술정보 대표이사
김수자	(주)한성식품 대표	이정하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서비스 국장
김용완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상임감사	이주혁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김인권	정음상공회의소/호남스틸 회장	이준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김정식	경찰대학교 학장	이중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 조사 본부장
문병창	(주)씨케이그룹 회장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
문훈숙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	정선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 단장
박 찬	신한은행 부행장	정재홍	재단법인만포장학회/공인회계사 정재홍 사무소 이사장/대표
박준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명제	(주)코닉글로리 대표이사
배권택	(주)대교 상무	좌상봉	(주)호텔롯데 대표
백영문	(주)다보미디어 회장	지영애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백종각	살롱라이프 대표	진석규	금융결제원 감사
성대영	위더스제약(주) 대표이사	최영훈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소진세	롯데쇼핑(주)수퍼사업본부/㈜KOREA SEVEN 사장	최우수	삼성전자 전무
심재훈	MPA Korea 변호사	최우영	하나은행외환파생상품 운용부장
오명식	삼정 KPMG 고문	하창조	(주)이크롬 사장
우동혁	KBS 남북교류협력 단장	하홍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육정호	대한주택 이앤지(주) 대표이사 사장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윤대일	(주)서울레이크사이드 대표이사	홍상철	(주)신일건설 부회장
윤상수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	황은연	(주)포스코 상무

최고지도자과정 제13기

9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최고지도자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다.

9월			
<입학특강> 만찬&오리엔테이션	정중섭 서울대 법대 학장	규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
법이란 무엇인가?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서양미술의 이해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클래식음악의 이해	민은기 서울대 음대 교수	<해외연수> 해외문화탐방	해외연수
헌법재판의 이해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
중년의 건강	권오중 레알 권오중 여성외과 원장	문명과 바다 : 해양에서 형성된 근대 세계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기업경영과 세무조사	최선집 Kim&Chang 법률사무소
		경찰경력과 과학적신비	소광선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국제 M&A 협상과 사례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
		추후예정	하일성 한국아구협회
10월		12월	
21세기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방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
추후예정	김대환 前노동부 장관	The Perils of Success	송호근 서울대 사회대 교수
상속으로 풀어보는 법의 세계	남효순 서울대 법대 교수	문훈숙의 발레이야기	문훈숙
행복한 사람들의 프레임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사회와 인권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술을 통해 본 창의력의 세계	이주현 미술평론가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포도주의 맛과 멋	방진식 와인문화연구소 대표
<부부특강> 국악과의 만남	황준연 서울대 국악과 교수	와인의 멋이 깃든 만찬	남기교 싶은 이야기들
사법부의 독립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추후예정	주선희 원광대 얼굴경영학 교수		

교수 소개

신동운 교수 _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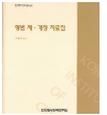
『형법 제·개정 자료집』은 형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독자들에게 현대화된 입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행되었다. 『형법 제·개정 자료집』은 제1부 형법제정자료, 제2부 형법개정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법령 및 사항색인을 부기하여 관련 자료 및 해당 조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박은정 교수 _ 왜 법의 지배인가 (둘베게)

『왜 법의 지배인가』는 저자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에서 행한 강연들을 토대로 저술한 것으로서,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법의 지배의 이념적 역사적 기초,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긴장, 법의 지배와 司法, 세계화 흐름에 비추어본 법의 지배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석광현 교수 _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 (CISG) 해설 (박영사)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법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영미계약법의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협약과 우리 민·상법에 따른 물품매매법을 비교하고 있다.



형법 제·개정
자료집



왜 법의
지배인가



국제물품매
계약의 법리

교수 동정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지난 6월 18일 본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법대 동창들로 구성된 법대문우회(회장 이동진) 창립모임을 가졌고, 6월 24일에는 한국인물전기학회(Korean Biographical Society) 창립10주년 심포지움을 <한국전기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여름방학에는 미국 동부에서 한국현대사 관계 자료를 수집하면서, 7월 24일에는 미주한국문화연구원(Korean American Culture Institute)에서 주관한 춘원 이광수 세미나에서 <춘원의 종교관>을 발표하였다.



최종고 교수



신동운 교수

신동운 교수

신동운 교수는 작년 9월부터 1년간의 일본 동경대에서 방문연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최병조 교수

최병조 교수

최병조 교수는 지난 6월 25일 한국법사학회 회장 선출 되었다. 또, 6월 26일에는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신희택 교수

신희택 교수

신희택 교수는 지난 8월 30일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국제거래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법관연수에서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보장협정의 법률관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박준 교수

박준 교수

박준 교수는 지난 3월 25일 법무부의 공익신탁법 제정특별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되어 7월까지 공익신탁법 초안 제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6월 4일 국립대만대학교 기업금융법센터(Center for Corporate and Financial Law)에서 주최한 금융법제개혁국제회의에 참가하여 “Consolidation and Reform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일리노이대학의 Larry Ribstein 교수, 홍콩중문대학의 David Donald 교수, 일본 와세다대학의 쿠보타 다카하시 교수, 국립대만대학의 王文宇, 林仁光 교수, 싱가포르경영대의 陳筆鴻 교수 등이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이철수 교수

이철수 교수

이철수 교수가 제 21대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재협 교수

이재협 교수는 지난 7월 24일 한국환경법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법과사회학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가 2012년 호놀룰루에서 주최하는 통합국제학술대회의 조직위원회(Program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 되었다.



이재협 교수

법학발전기금 출연현황

2010.06.01 - 2010.08.31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법과대학 / 법학연구소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2010-06-07	법대20회 동문일동	5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0-08-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 임		
2010-06-09	조상원	500,000	법과대학	위 임	2010-08-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6-11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 서	2010-08-31	(주)보담	1,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6-14	최기열	8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6-16	법무법인 세종	5,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납입액 기간 합계		33,220,000				
2010-06-18	김·장 법률사무소	10,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10.06.01-10.08.31)						
2010-06-21	성낙인	2,000,000	법학연구소	연 구	연간 합계		1,193,030,000				
2010-06-22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10.01.01-10.08.31)						
2010-06-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 임	법학발전재단						
2010-06-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납입일				성명	납입액	기금용도
2010-06-29	법무법인(유) 태평양	5,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2010-06-15	법대 8회 동기회	10,000,000	위 임			
2010-07-13	후원자 00065	5,000,000	법과대학	장 학	2010-07-30	강재철	5,000,000	위 임			
2010-07-13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 서	2010-08-12	법무법인 율촌	5,000,000	장 학			
2010-07-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7-22	김준영	3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납입액 기간 합계		20,000,000				
2010-07-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 임	(10.06.01-10.08.31)						
2010-07-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 술	연간 합계		127,000,000				
2010-08-11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 서	(10.01.01-10.08.31)						
2010-08-23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 술							
2010-08-26	법무법인 총정	3,000,000	법학연구소	학 술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기관명	일시	일정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06.07 ~ 06.12	기말시험
	06.15	법학대학원 평가회
	08.27	2009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법학연구소	06.24	유럽의 헌법적 전개와 국민국가의 미래 / Dieter Grimm 교수 (독일 훔볼트대학,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08.09	New Trends in Law & Economics: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al Law / Stefan Voigt 소장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법경제학 연구소)
금융법 센터	06.16 ~ 06.30	준법감시전문가과정(Regulatory & Compliance Specialist Program) Phase 3 진행 (금융투자교육원 공동주최)
	07.30	Poison Pill / Hideki Kanda 교수(Tokyo Univ.) 초청 세미나
기술과 법 센터	06.08	국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
	07.19 ~ 07.23 / 07.26 ~ 07.30	사법연수생 법률봉사
공익인권법 센터	06.26	혼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법 (한국젠더법학회 공동주최)
	07.05 ~ 07.06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공동주최)
국제통상·거래법센터	08.24	국제통상·거래법센터 Research Assistant 모집
환경·에너지법 센터	07.21	환경·에너지법 센터 설립 본부 승인
헌법·통일법 센터	07.21	헌법·통일법 센터 설립 본부 승인
	08.30	비무장지대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